

호남고속철 남공주·정읍역 결국 신설

광주·전남지역민 반대 불구 건교부, 여당 제시안 수용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제시한 호남고속철도 남공주·정읍 정차역 추가 건설방안이 정부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오송~목포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안을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해 SOC건설추진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서울~목포 구간 정차역을 광명·천안·아산·오송·익산·광주 등 5개 역을 선정했지만 수정안에 남공주역과 정읍

역을 추가, 정차역은 7개로 늘어났다. 건교부의 수정안에 따라 사업 예산도 당초 10조979억원에서 10조5천717억원으로 4천 738억원이 늘어났으며, 건설비의 85%는 국고에서 출연하고 나머지 15%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호남고속철도 수정안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착공시기는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선거철을 맞아 지역별로 정차역을 신설하는 국토 계획 개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

다. 특히 지역민들은 호남고속철 기본계획에 없던 정차역을 신설하려면 호남고속철 승객의 가장 많은 수요를 담당할 광주·전남지역의 의사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선거 공약에만 의존했으며, 고속철의 속도 저하가 불가피해 운송 및 물류 기반으로서의 본래 기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남공주와 정읍에 역이 추가로 신설될 경우 운행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차역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해 운행하는 ‘격역 정차’ 방식으로 서울~목포간 당초 운행 소요시간인 106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남공주역 주변의 백제문화권, 정읍역 주변 내장산 관광지구에 대한 관광 수요가 창출돼 중간역 추가 신설로 경제성이 0.31에서 0.39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남공주와 정읍에 정차역이 추가될 경우 호남고속철도 수요가 개통 초기에는 하루 3천 400명이 증가하고 개통 30년 후에는 하루 4천명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교부는 SOC추진위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우선 오송~광주 구간을 2015년까지 완공하고 광주~목포 구간은 오송~익산 구간 완공전 착공해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도 착공시기는 불명확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설

私學法 국회 대치 여당이 나서서 풀어야

사흘 남은 4월 임시국회가 사학법 재계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갈림 대치로 다급한 민생관련 법안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채 몰스톱 상태다. 밀린 법안들은 비정규직 관련법, 3·30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로스쿨법, 금산법, 성폭력처벌법등 실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계정 없는 다른 현안 처리도 협조 못한다”는 버티기 작전이고 열린우리당은 “더이상 사학법을 누더기로 만들 순 없다”며 역시 고개를 돌리고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며 지금의 대치상태를 풀 일차적 책임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월 이른바 ‘산상회담’을 통해 장외투쟁을 벌이던 한나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이때 나온 여야합의문

은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계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이 핵심쟁점인 개방형이사 추천권 문제에 대해 재단도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계정안을 낸 건 당의 색깔로선 당연하다.

문제는 열린우리당 내부의 이견이다. 열린우리당은 시형령에서 개방형 이사들의 자격조건을 정하고 ‘사학의 건학이념에 맞는자’등의 단서를 달아 한나라당을 설득할 복안이었으나 당내 강경파들이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여야합의마저 시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학법은 한나라당이 어떤 주문을 한 다 할 지라도 사학의 비리는 근절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만큼 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계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한 여당이 당내이견을 무마하고 한나라당과 대화를 하는 게 정도다.

우리당 광주시장 후보

來13일까지 여론조사로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가 다음달 13일까지 광주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선출된다.

열린우리당은 27일 공직후보자선정특위(공특위)를 열고 광주시장 후보 선정과 관련 다음달 13일까지 중앙당 선관위 주관으로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갖고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공특위의 결과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는 최종 광주시장 후보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선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지침에 따르면 공역단체장의 여론조사의 경우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1천2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형식으로 실시한다.

중앙당 선관위의 토론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 선출 여론조사는 다음달 10~12일경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명선거자문위원회 간담회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수안)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28일 광주센터별호철 회의실에서 ‘공명선거자문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선거 확산 및 투표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몽구 회장 구속 수감

법원 ‘실형선고예상 영장 불가피’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8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정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현대차 비자금 용처와 정·관계 고위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대부분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모두 같은 회사 임직원인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횡령·배임 금액이 거액이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선고가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의 건강, 현대차그룹의 경영안, 대외신인도 하락이나 국내 경제의 악영향 등 염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계열사들을 통해 1천3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들을 채무과다로 부실해진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시

김으로써 4천억원여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1년 이후 현대차 등 그룹 계열사의 회사자금 1천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우주항공㈜ 채무에 대한 자신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1999년 8월과 2000년 4월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케 함으로써 현대차 등 계열사에 총 3천58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금호 렌터카 사장 이삼섭
금호고속 광주사업부 사장 김성산
금호고속 서울·중지역 사장 이원태



이삼섭 사장



김성산 사장



이원태 사장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삼구)이 5월 1일자로 이삼섭 전 금호페이퍼백 사장을 금호렌터카 사장으로, 김성산 금호렌터카 사장을 금호고속 광주사업부 사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3월10일 금호페이퍼백이 아세아제지에 매각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인사로 금호고속은 기존의 이원태 사장이 서울 및 중지역의 고속버스 사업을 맡고 새로 부임한 김성산 사장이 광주·전남지역의 직행버스사 부문을 맡는 2대표 체제가 된다.

특히 김성산 사장은 광주지역에 상주하며 금호고속 업무 이외에도 광주·전남지역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대표, 각종 업무들을 함께 챙길 예정이다.

이삼섭 사장은 1976년 종합무역상사인 금호실업에 입사, 금호건설을 거쳐 후 그룹종합기획 부부장 업무를 맡아 타이어·항공·고속·건설·화학 등 그룹 전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부시, 메구미 엄마 만난다

(피파 김영남씨 장모)

일본인 납치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실종 당시 13세)의 어머니 사키에(專紀江, 70) 씨가 27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합동청문회에서 납치문제에 대해 증언했다. 미 의회에서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이 증언하기는 처음이다.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사키에 씨는 “세계 각국의 피해자를 구해 앞으로의 인생을 자유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했다.

그는 손수 작성한 A4 용지 4매 짜리의 원고를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 갔다. 딸에 대해 언급할 때는 “북한에 있는 것이 알려진지 9년 이상 지났는데 아직 구출되지 못했다”며 “왜 도와주지 않는지, 분하고 슬퍼서 견딜 수 없다”며 목청을 높이는 등 북받치는 듯 격한 심정을 드러냈다.

/최진희기자 man21@kwangju.co.kr

사키에 씨는 “메구미는 아직 건강하게 그곳(북한)에 있다”며 “정말 이제는 지쳐버렸지만 아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상 어떤 일이 있어도 쓰러질 수 없다”고 다짐하며 눈물을 머금었다.

그는 “세계가 마음을 합쳐 ‘납치를 응서할 수 없다. 모든 피해자를 곧바로 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제제재를 발동한다’고 확실히 말해달라”며 “그것이 우리 가족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제관계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양’과 ‘인권’ 등 2개 소위가 함께 열었다. 사키에씨의 증언은 ‘북한인권법’에 의한 미국의 대북정책 관련 예산 등에 반영될 전망이다.

사키에씨는 28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최진희기자 cki@kwangju.co.kr

1면 ‘TV 안보기’서 계속

또 최근에는 각 방송사가 선정적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거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시청률 확보에 급급한 프로그램을 납발하는 데 반발, TV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 ‘TV 안보기’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캠페인을 준비중인 시민 모임은 ‘TV 안보는 주간’에 ▲자녀들과 TV 덮개 만들어 씌우기 ▲앨범정리 ▲화초 가꾸기 등 대안활동을 제안하고 있으며 인터넷 카페(cafe.daum.net/notvweek), 기독교윤리실천운동(www.cemk.org)와 책 ‘TV 안보고 뭐하지’(한울수서·4천500원) 등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대총장, 점거농성 總學에 할말 하라

강정재 전남대 총장이 보름째 총장실로 출근하지 못하고 대학내 다른 건물에서 집무하고 있다. 바로 전남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분 반환을 요구하며 총장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배들이 전남대 총동창회 임원 40명이 지난주 농성장을 찾아 농성을 풀 것을 간곡히 당부했지만 학생들은 지금껏 요지부동이다.

우리는 지역 지성의 산실이자 지역의 미래를 이룰 중심대학인 전남대가 소수 총학생회 간부학생들에 의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데 대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이 문제점은 등록금 인상은 물론 최대한 자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국립대인 전남대가 문제사학들 처럼 등록금으로 잇속을 챙기거나 흥청망청 써대는 대학이 아니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더욱이 전남대의 인성폭은 전국 대학들의 인성

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대학 총학생회가 독재정권 타도에 앞장서던 시절, 학생회는 교내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교칙에 얽매이지 않는 특권을 누렸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우리 사회 각 부문은 아무리 목적이 옳더라도 불법과 폭력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성장했지 않은가.

이런 강총장이 직접 농성학생들에게 할말을 할 시점이다. 그들의 농성이 전남대 졸업생에게 과거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점이나 대학에 필요한 건 투쟁력 이 아니라 경쟁력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강총장은 더 본질적인 문제, 즉 학생들의 점거농성은 교칙에 어긋나고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것이란 점을 나무라야 한다. 총장의 뒤에는 전남대가 잘되길 바라는 수백만 시민이 있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란다.

5·31 지방선거 현장

“조영택 후보 환대는 허위”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측은 “광주시 공무원들이 시청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조영택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환대했다는 조 후보측의 보도자료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측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젊은 공직자들이 지난 26일 광주시청을 방문한 조 후보에게 박수를 치는 등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 조 후보가 크게 감격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측은 “조 후보는 허위내용을 언론플레이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을 교묘하게 선거에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말했다.

우리 도당 장흥서 필승대회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유선호)은 28일 오후 3시 장흥군민회관에서 공천자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조배숙 최고위원과 김점중 장흥군수 후보, 안명규(1선거구) 이승희(2선거구) 도의원 후보, 최경석(가선거구)·박길주·왕윤재(나선거구) 기초의원 후보 및 당원들이 참석해 필

승 의지를 다졌다.

김점중 장흥군수 후보 등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장흥군민회관 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화순 민주당원 1천여명 탈당

○-최영호 민주당 화순군수 예비후보(현 전남도의원) 등 화순지역 경선참여 예비후보들이 28일 불공정경선을 주장하며 무더기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조 후보와 전남도의원 예비후보인 문형호, 임근우 후보, 화순군의원 예비후보 3명 등 6명은 이날 오후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최 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최 후보는 이날 탈당과 함께 무소속 전남도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화순지역 민주당원 1천여명도 민주당 전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 후보들은 “5·31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군수에서부터 도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이르기까지 불법부정으로 일관됐다”며 “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민주당을 탈당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희숙기자 who@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幸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鏡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2-8005)	(F A X 222-0118)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 국 2200-521	판매 부 2200-551
경제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 부 2200-617	체육 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